

주거환경 스트레스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Residential Stress Factor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전주우석대학교 가정학과
부 교 수 곽 인 숙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 Jae, Moon

Dept. of Home Economics, Jeonju Woosuk Univ.

Associate Prof. : In Suk, Kwak

〈 목 차 〉

I. 서 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sidential stress and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 on it, based on the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 For this purpose, 822 housewives were collected from the households in Seoul and Chonju-City.

The main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urban households surveyed are observed to suffer from residential stressors. The components of residential stressors are housing facilities, family living space, social interaction with the neighborhoods, physical condition of house.

2.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residential stress the most important household environment factors are, the level of family controllability, which is followed by the family adaptation ability, the size of living spac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type of housing ten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residential stress is associated with not only residential size but also the level of housing facilities and social interaction. Overall upgrading of residential quality requires efficient allocation of living space and

facilities on the basis of resident's needs. For instance, homeowners want more living space and renters want higher level of residential facilities.

I. 서 론

도시 가족은 도시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에 의해 주거환경과 관련된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경심리학의 발달로 환경과 인간행동의 관계를 심리학의 일반 스트레스이론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70년대 이후 환경의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사회적, 심리적 조건이 중요한 자로 대두되어 프라이버시의 수준과 자유로운 행동의 제한 등 심리적 요소를 추가했다 (Holahan, 1982). 그 이후 Yancy(1971), Newman(1973), Altman(1975), Cohen(1980), Zimring(1981) 등이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인지과정과 가족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환경 스트레스 접근(The Environmental Stress Approach), 각성 접근(The Arousal Approach), 자극의 부담 접근(The Stimulus Load Approach), 적응수준 접근(Adaption Level Theory), 행동제약 접근(The Behavior Constraint Approach), 사회생태적 접근(The Social Ecology Approach) 등을 시도하였다. 환경 스트레스 접근은 환경의 자극들을 스트레스 유발인자로 보고, 혐오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개변인으로 '스트레스'를 사용한다. 이 접근은 유발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환경적·사회적 스트레스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Bell 외, 1978). 스트레스 접근을 사용한 연구결과 도시생활은 성장지향적인 긍정적인 면과 긴장과 과도한 자극에 의해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으로 인해 행동의 많은 제약, 불편함,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환경 스트레스는 가족의 심리적 균형상태를 깨고,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쳐 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친사회적인 행위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가족의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과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한된 가족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의사결정시 실제적인 정보 제공, 주거관리를 위한 표준 설정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주거지 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개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스트레스는 원래 물리학의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압력, 긴장, 체계나 조직에 대한 기계적인 영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의학관련 분야에서는 생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특수한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 Selye(1956)는 생물학적 개념을 주어 스트레스를 생물학적 체계내에 통상적으로 유도된 변화에 의해 드러난 특수한 증상으로 정의하였다(Boss, 1988). 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초기 실험연구는 신체적·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학적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유기체의 항상성(homeostasis)의 경향에 기반을 둔다. 스트레스는 평소 또는 원하는 정도보다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신체가 기능해야 할 때 경험하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적, 일반적 반응으로 유쾌한 상황과 불쾌한 상황이 모두 포함된다(Rice 외, 1986).

환경심리학자들에 의해 환경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인자로 소음, 과밀, 과도한 기온의 상승 등 물리적 환경이 주로

지적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환경과 인간행동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과밀환경이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못하여 자유스러운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인간의 심리적·행동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Holahan, 1982).

환경 스트레스는 개인의 요구와 환경적 속성의 부적합(misfit)에서 비롯되는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개인과 환경의 불균형이나 부적합 상태(McGrath, 1978), 위협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체계 변화의 필요를 인지하는 것(Melson, 1980; Zimring, 1981)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거환경의 제측면들이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가족의 규범을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과 주거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위협적인 존재로서 자구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가 포함될 때 스트레스로서 문제의 대상이 된다.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택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 가족이 긴장하고, 불편함을 인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행동이 요구되는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주거긴장(Seek, 1983)이나 주거결함(Morris 외, 1976)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Maslow의 욕구위계설을 기초로 한 Cooper(1975)의 주거욕구위계가 가족의 주거요구의 파악과 주거계획시 적용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Soen, 1979; Meeks, 1980)에서 증명되었고,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거욕구위계와 관계가 된다. 주거욕구는 가족이나 사회의 규범에 따라 상이하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고 있어, 가장 낮은 단계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해결을 시도하고 하위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주거욕구에 따른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의 피난처로서의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단계로 생존하기 위한 수면, 식사, 호흡등의

행동수행을 위해, 주택내의 따뜻함과 시원함, 빛, 공기, 환기를 기대하게 된다(Meeks, 1980). 이 욕구는 주택의 기본적인 배관, 배선,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통해 충족될 수 있으며 부적합한 환경이 제공되면 거주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Zimring, 1981) 신체의 발달부진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가족의 생존을 위한 욕구가 일단 충족되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소유재산에 대한 보호욕구가 발생하여 주택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체적·사회적인 보호 서비스제공을 기대하는 단계이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무능력해지고,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적인 발달이 부진하게 된다. 극단적인 기온의 상승, 매연이나 먼지, 꽃가루,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Holahan, 1982; Bell 외, 1978; 이만우, 1987). 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소음은 주거이동을 고려하게 하며(Michelson, 1977), 공격성의 증가나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거리의 범죄 위협은 거주자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대인관계의 신뢰수준과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House 외, 1978; Holahan, 1982). 주거비의 과중한 부담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주거이동의 중요 원인이 된다(Varady, 1983).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주택의 저당금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거이동을 고려하게 되며(Coupe 외, 1981; Brown, 1983), 경제적 제약이 큰 저소득 계층은 이 스트레스의 양이 다른 계층보다 더 높다.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안락하고 편리한 주택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며,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가족은 불편함을 인지하게 되고,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된다. 잘못 계획된 건축 환경, 학교의 질, 자녀교육에 부적합한 이웃,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 출퇴근과 통학시 어려움(Fisher 외, 1983), 공공교통시설의 이용가능성 결여 등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만든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이용정도는 주거이동과정의 중요 고려 사항이며(McCray 외, 1977; Meeks, 1980), 통근의 어려움은 주거만족의 중요변수로 자가운전자의 경우 스트레스

를 증가시켜(Stokols 외, 1981)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ichelson, 1977 ; Lam, 1985).

안락하고 편리한 주택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되어, 주택이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이기를 원한다. 주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표현의 장소이기를 위해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가족은 고립과 질투를 느껴 가족간이나 이웃과 갈등관계가 형성된다. 원하지 않는 이웃과의 빈번한 접촉이나 갈등은 강도는 약하나 누적되는 고질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Baum 외, 1982). 이웃이 자신의 가정과 유사한 사회계층, 가정생활주기, 생활유형이기를 희망한다. 생활공간의 부족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 가족간의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적어진다(이경희, 1986). 개인 공간이 명확치 않을 때 경쟁관계가 더 많이 나타나며(Baum 외, 1977), 가족이나 이웃과의 과도한 접촉이나 자녀에게 비교육적인 환경은 인간관계의 불화나 수행능력의 결함을 초래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든다.

사회적인 상호관계 유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주택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름다운 주택이기를 희망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Meeks, 1980).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가족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자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비능률적 행동이 나타난다. 주택을 통해 자신의 유능함, 자율성, 권력등을 인지하고 개인의 취미와 재능을 개발하길 원하며, 내·외부공간을 개인화하고, 주택의 미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가소유는 가족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고, 사회적 지위와 계층의 표현이며(Hohm, 1983),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만족을 준다. 따라서 자신의 주택을 갖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규범을 가진 경우, 임차가는 자가소유결함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경제적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Coupe 외, 1981; Brown, 1983). 또한 가족의 구성이나 사회경제적 능력의 변화등으로 인해 주거요구가 변화되거나 주거속성이 변화하게 되면, 가족과 주거환경과의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 가족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Seek, 1983).

이상에서 볼 때 주거환경은 가족의 정신·신체 건

강과 사회적 집단으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현재 주택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주거욕구의 단계에 따라 상이하며, 가족에게 강도는 약하나 누적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3.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인지와 관련변수

Lazarus(1976)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정중 스트레스 유발요소에 대한 평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스트레스 유발요소에 대한 반응은 인지된 위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과정은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나 가족 자원과 같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① 가구특성

가족은 소득에 따라 다른 주거열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가족은 주거요구에 대해 비교적 계획적인 소유나 구매를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족은 자신이 원하는 주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한다(Coupe 외, 1981). 소득은 자가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소득 수준이 높은 가족이 일찍 자기 집을 소유하고, 주거이동시에도 상승적 이동을 한다(Kendig, 1984). 남편의 직업과 교육수준은 가족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소득보다 더 강력한 관계를 가지며(Ferrell 외, 1977; Speare, 197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결함의 점수가 낮았다(홍형욱, 1986). 가족수와 구성은 프라이버시나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에 차이를 보여 가족 규범의 차이를 가져오며, 필요로 하는 침실수와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Morris 외, 1975). 자녀가 어린 가정은 가족단위의 공간, 세탁공간, 자녀의 대소변훈련에 적합한 욕실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고(Downer 외, 1968), 자녀의 성장에 따른 추가공간, 침실분리를 위한 공간, 물품수납공간, 놀이공간, 자신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과 학교가 좋은 지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Downer 외, 1968; Coupe 외, 1981). 가정생활주기의 진전에 따라 가족의 요구와 규범이 변화되므로 스트레스 요인도 다르다(Speare, 1974 ; Kendig, 1984).

② 주거특성

주택의 규모는 주거이동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거결합의 중요한 요소이며(Speare, 1974), 중산층 주부들의 가정생활 문제는 주택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옥선화 외, 1991). 방당거주인수는 주거공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Peck 외, 1985) 과밀이나 상호접촉의 빈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의 유형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주변의 편의시설, 난방설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Edwards, 1982), 희망하는 주택 유형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르므로 스트레스의 수준도 다르다(Lam, 1985). 주택의 소유는 주거환경의 질의 중요변수이며(Michelson, 1976), 가족의 규범에 따라 심각한 결합을 유발시키고(Morris 외, 1978)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든다. 특히 저소득층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Rent 외, 1978), 주거이동의 원인이 된다(Clark, 1983). 주택의 위치는 소음이나 먼지 등의 물리적인 환경과 지역 서비스시설의 이용정도(Meeks, 1980), 통근이나 통학등의 어려움(Fisher 외, 1983)에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역이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웃주민의 사회적 특성은 주거이동의 동기가 되며(Ferrell 외, 1977), 지역의 범죄 발생율은 인간상호간의 신뢰나 타인을 돕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House 외, 1978).

③ 가족의 심리적 자원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도 가족자원, 취약성, 재생력 등 가족이 소유한 심리적 자원의 양에 따라 가족은 환경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차이를 보인다(Burr, 1973 ; Hill, 1949).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영향은 직접적인 생리적 자극이나 객관적 위협보다 가족이 스트레스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증대될 때 비중이 더 커진다(Morris 외, 1978). 인지된 조정가능성은 스트레스의 강력한 증재자로 조정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적응비용이 적게 든다(Cohen, 1980). 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는 경우 개선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적응력은 상황적, 발달적 압력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배종열, 1985), 상황에 따라 가족의 진로를 변경시키고,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 응집력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 혹은 심리적인 유대로서 응집력 있는 사회적 조직망은 과밀이나 가족의 어려움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유발요소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Epstein, 1981 ; Zimring, 1981, p.148에서 재인용). 응집성의 유대는 가족에게 통합성을 제공해 줌으로써(Deacon 외, 1981) 스트레스 상황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하며, 긴장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원은 Caplan(1974)의 연구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타인의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부담을 덜도록 도와주며, 과업을 공유하고 금전, 물질, 도구, 기술, 인적 지도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켜준다(이경희, 1991). 또한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적응이나 생활의 만족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의 위기, 행동의 부적응, 환경적 스트레스의 완충작용을 한다. 가족외부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개별가족의 능력으로 가족을 스트레스인자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소유한 자원이 적은 저소득층 집단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cCubbin 외, 1980).

생활의 만족이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으로 생활의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한 문제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건을 덜 위협적으로 평가하여, 스트레스 유발요소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다(Baum 외, 1982; Fiedler 외, 1975; Fisher 외, 1983). 생활의 만족은 다양한 측면과 상호연관을 가지므로 만족하는 가족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은 가구특성이나 주거특성에 따라 다르며 환경의 자극에 대한 위해 정도는 평가과정을 통해 여러 증재요인에 의해 그 심각성이 달라진다. 가족의 심리적 자원은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자원이 풍부할 경우 동일한 스트레스도 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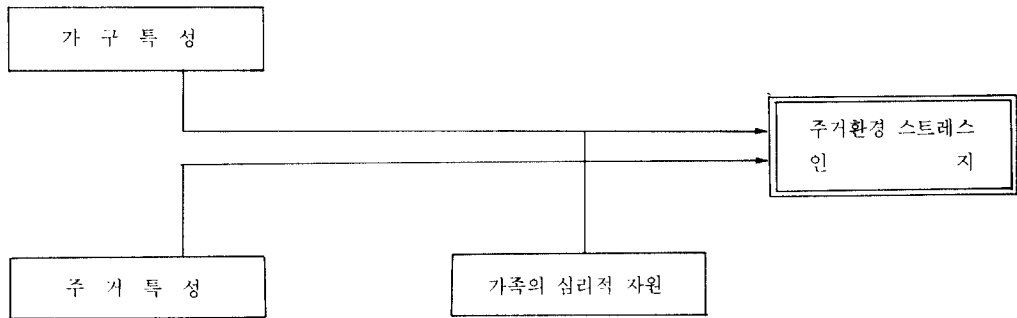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주거환경의 영향을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집근법을 사용하여 Morris 외(1978)와 Bell 외(1978)의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개념적 모형을 구성

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객관적 환경은 가구특성, 주거특성이 제시되었으며, 매개변인으로는 가족의 심리적 자원이 제시되었다. 종속변인인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거욕구의 단계에 따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개념적 모형

〈연구문제〉

- ① 도시가족이 인지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 ② 도시가족이 인지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나?
- ③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은 가구특성이나 주거특성, 가족의 심리적 자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④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측정도구의 구성

① 가구 특성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남편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분류를 근거로 무직·은퇴, 단순노무자, 피고용기능공, 자영상공인·자영기술자·자영서비스업, 사무직·기술직, 전문직·관리직, 대기업주·자본가·정부의 최고위관

리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실제 교육받은 연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원수는 현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동거인을 포함한 수로, 1인 가정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핵가족, 부모나 결혼한 자녀부부, 또는 친척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확대가족으로 분류하여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분류했다. 가정생활주기는 Duvall(1985)의 8단계를 신혼기, 미취학아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자녀독립기의 6단계로 수정 분류하였다.

② 주거 특성

주택의 규모는 현재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규모를 평수로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주택의 소유는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상태에 따라 자택, 독채전세, 일부전세, 월세, 사택 등으로 분류하였다. 방당거주인수는 현재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족수 및 동거인수를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의 수로 나누는 값을 사용하였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이외의 건물로 분류하였다. 주택의 위치는 현재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단독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공장지대,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③ 가족의 심리적 자원

가족의 조정력, 적응력, 응집력에 관한 4문항은 박금희(1986)의 설문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5점 Likert Type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에 있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Cronbach's α 계수는 조정력이 .89, 적응력이 .75, 응집력이 .80이었다. 사회적 지원은 가족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의 공적·사적인 지지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김정희(1987)의 문항중 6문항을 선정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신뢰도 검증의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가족의 생활만족도는 김연정(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최고의 만족수준을 10점, 최하의 불만족수준을 0점으로 한 11단계의 사다리척도를 기초로 주부가 인지한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수준을 측정하여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주어 가장 만족한 가족을 10점으로 사용하였다.

④ 주거환경 스트레스

주거환경의 스트레스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Bell의(1978), Holahan((1982), 김미희(1985), 꺾인숙(1986) 등의 연구를 기초로 주거욕구의 단계에 따라 9문항씩을 선정하였다. 이들중 예비조사후 37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Type으로 주거환경에서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경우 1점,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 5점을 주어 주거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예비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1991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였고, 분석 후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1991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700명과 전주시에 거주

하는 주부 400명의 총 1,100명을 대상으로 평균가구 소득과 가정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방법에 의해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613부와 전주지역의 209부 등 총 82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배경변인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 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서울과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 특성과 주거특성은 <표 1>과 같다. 가구특성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중간 집단이 120만원 정도이며, 남편의 직업이 사무·기술직인 가구는 36.2%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수는 4명이 34.9%로 가장 많고, 평균 가구원수는 4.16명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전체의 84.9%였으며, 가정생활주기는 초등교육기가 22.0%, 미취학아동기가 21.4%의 분포를 보였다.

주택의 규모는 실제 생활면적이 21坪이상 30坪이하인 가구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 집단의 주택의 규모는 25坪이었다. 주택의 소유상태는 자택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독채전세가 21.8%, 전세방이 12.9%로 분포되어 있으며, 가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의 수는 3개가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9개의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44.6%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이 38.0%, 연립주택이 12.7% 였다. 주택이 위치한 장소는 단독주택가가 가장 많아 47.4%였고, 아파트 단지인 경우가 42.9%, 상가가 5.8%, 공장지대인 경우가 1.5%였다. 방당거주인수는 1명이상 2명이하인 가구가 65.1%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의 가구특성과 주거특성

(N = 822)

변수	집 단	%	빈도	변수	집 단	%	빈도	
가구의 소득	60 만 원 이하	10.3	85	주택의 규모	13 평 이하	13.5	111	
	61 - 100 만 원	30.7	248		14 - 20 평	20.6	169	
	101 - 150 만 원	22.6	186		21 - 30 평	33.3	274	
	151 - 200 만 원	20.9	172		31 - 40 평	16.2	133	
	201 - 250 만 원	4.7	38		41 - 50 평	9.1	75	
	251 만 원 이상	10.8	89		51 평 이상	7.3	60	
남편의 직업	무직·은퇴	1.9	15	주택의 소유	자택	60.9	501	
	단순노무자	4.0	32		전세집	21.8	179	
	피고용기능공	6.3	51		전세방	12.9	106	
	자영상공인	21.8	176		월세	3.8	31	
	사무직·기술직	36.2	292		기타	0.6	5	
	전문직·관리직	27.6	223		사용하는 방의 수	1개	5.7	47
대기업주	2.2	18	2개	27.6		227		
남편의 교육수준	중학교졸업	9.4	77	3개		44.5	366	
	고등학교졸업	28.6	231	4개		14.7	121	
	대학교졸업	50.0	404	5개 이상		7.4	61	
	대학원 이상	14.5	117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38.0	312	
가구원수	2명	10.2	84		아파트	44.6	367	
	3명	18.6	153		연립주택	12.7	104	
	4명	34.9	287		주택이외건물	4.7	39	
	5명	23.0	189		주택의 위치	단독주택가	47.4	390
	6명	9.0	74			아파트단지	42.9	353
	7명 이상	4.3	35			상가	5.8	48
	가족의 형태	핵가족	84.9	698		공장지대	1.5	12
확대가족		15.1	124	기타	2.3	19		
가정생활주기	신혼기	10.6	87	거주지역	서울	74.6	613	
	미취학아동기	21.4	176		전주	25.4	209	
	초등교육기	22.0	181	방당 거주인수	1명 이하	25.2	207	
	중·고등교육기	21.2	174		1-2명 이하	65.1	535	
	대학교육기	16.8	138		2.1명 이상	9.7	80	
	자녀독립기	8.0	66					

2.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

가족이 경험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 점수는 최하 37점에서 최고 172점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점수는 99.83점이었다. 100점 기준으로 보면 42.4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스트레스의 수준을 보면 <표 2>와 같고 가장 높게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항목은 주택내 녹지나 정원의 소유에 대한 문제로 평균 3.147점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개인의 정원이 없고 또한 단독주택도 토지가격의 부담이 커 정원이나 옥외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이웃집의 소음 문제로 이는 공동주택의 방음시설이 미비하고 사회공공질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근처의 차량소음, 물품보관과 정리에 필요한 공간의 부족, 주택의 투자전망 등이 스트레스의 근원이며, 이는 주택을 생활공간의 의미만이 아닌 투자대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한 항목은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시설, 주택의 소유, 전기·조명설비, 학교 통학시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3.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과 제변수들의 영향력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을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으로 회전시킨 결과, 37개의 요소중 35개의 요소가 8개의 요인으로 분류된 내용은 <부록>과 같다. 첫번째 주택내 시설과 설비요인의 고유치는 4.623으로 전체 분산의 30.4%를, 전체 8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58.4%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출된 주요 주거환경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주택내 시설과 설비, 가족단란의 공간, 이웃의 사회적환경 요인, 주택의 물리적환경 요인, 생리적 시설 요인, 주택의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요인, 서비스 시설과의 거리, 이웃과의 프라이버시 확보 요인 등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내 시설·설비와 관련된 요인은 주거욕구의 단계에서 안락과 편리의 단계와 관련되어 있

고, 또한 가족단란의 공간확보 요인은 주거욕구의 단계에서 안락과 편리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의 단계에 속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 지표로 공간내부의 적합성, 주거설비의 적합성, 아파트의 형태나 물리적인 질, 이웃과의 프라이버시등의 순으로 제시한 Onibokun(1974)의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결과(Soen, 1979, p.130에서 재인용)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특성, 주거특성, 심리적 자원을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주택내 시설·설비요인의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변수는 가족의 조정력, 주택의 규모, 생활의 만족, 적응력, 방당거주인수, 가족형태, 사회적 지원, 남편의 직업, 주거위치 등이 37.3%의 설명력을 가진다($p < .001$). 주택내의 난방, 취사, 세면, 전기, 조명설비와 같은 주거공간의 안락과 편리의 요구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에 주택의 규모가 영향을 미쳐 주택의 규모가 적을수록, 방당거주인수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 남편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중 유흥가나 공장지대에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고, 다음은 상가, 단독주택가의 순으로 낮아졌다. 이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난방시설 등의 편리함이 가구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가족의 경우 조정력이나 적응력, 사회적 지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았다.

가족단란의 공간확보에 대한 요인의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의 규모, 조정력, 방당거주인수, 생활의 만족, 사회적 지원, 적응력 등이 유의하였으며, 33.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p < .001$). 가족단란의 공간확보에 대한 스트레스는 주택의 규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규모가 작아질수록, 방당거주인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조정력, 사회적 지원, 적응력, 생활의 만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가족의 심리적 자원이 풍부할 경우 공간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주거환경 스트레스 인자의 평균 점수

(N=822)

주거환경스트레스인자	평균
32) 주택내 녹지나 정원의 소유	3.147
36) 이웃집 소음이 너무 잘 들림	3.002
26) 주택근처의 조용함(자동차등의 소음)	3.001
29) 주택내 물품 보관, 정리에 필요한 공간	2.978
34) 주택의 투자 전망	2.959
19) 주택의 가격	2.950
33) 거실의 크기나 조용함	2.943
27) 쓰레기 수거 상태	2.940
5) 주택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성	2.934
25) 주변의 공기 오염정도(매연, 악취)	2.893
37) 주택의 크기	2.880
31) 주택내부에서의 사생활공간의 확보	2.864
18) 주택내부공간의 적합성	2.854
28) 공공교통수단의 이용시 편리	2.821
8) 직장까지의 출퇴근시 어려움	2.812
30) 주택내부의 가족단란의 장소	2.755
14) 주택의 구조설비	2.742
4) 주택주변의 안전성(방범상태)	2.740
15) 부엌의 취사설비의 사용시 불편	2.736
16) 쥐나 해충의 성가심	2.727
35) 이웃집에서 들여다 보임	2.669
12) 주택의 외부상	2.629
17) 화재나 주택내 사고위험성	2.628
11) 자녀교육에 알맞는 이웃환경	2.617
21) 이웃주택의 외부상태	2.602
3) 주택의 유지관리비,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	2.585
7) 공공시설과의 거리(시장, 병원, 동사무소, 은행)	2.559
10) 이웃의 생활수준과 적합	2.547
22) 주택의 난방상태	2.517
24) 세면과 세탁을 위한 시설	2.513
6) 가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	2.507
20) 자녀의 학교	2.495
9) 학교에의 통학시 어려움	2.469
23) 전기, 조명설비	2.338
13) 주택의 소유권	2.231
2) 화장실 사용시 불편	2.147
1) 상하수도 시설, 수도물사정	2.102
합 계	99.833

〈표 3〉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표

(N=822)

요 인 독립변수	주택내 시설·설비 B(β)	가족단란의 공간 B(β)	이웃의 사회적환경 B(β)	주택의 경제적인 B(β)
δ지역	0.435(0.035)	0.288(0.022)	-0.814(-0.104)**	0.234(0.060)
δ자영상공인	-1.726(-0.131)**	-0.293(-0.021)	-0.157(-0.019)	-0.186(-0.045)
δ사무직·기술직	-1.593(-0.140)g**	-0.109(-0.009)	0.120(0.017)	-0.088(-0.025)
δ전문직 등	-1.132(-0.095)	0.204(0.016)	-0.169(-0.023)	-0.049(-0.013)
가구의 소득	-0.002(-0.027)	0.005(0.062)	-0.000(-0.003)	0.001(0.052)
남편의 교육년한	0.118(0.061)	0.122(0.060)	0.047(0.039)	-0.022(-0.036)
가구원수	-0.186(-0.044)	0.312(0.070)	0.074(0.028)	0.056(0.043)
δ가족형태	-1.676(-0.110)***	-0.471(-0.029)	-0.168(-0.018)	0.127(0.027)
δ미취학아동기	0.440(0.033)	-0.019(-0.001)	0.734(0.089)	-0.169(-0.041)
δ초등교육기	0.696(0.053)	1.106(0.079)	1.823(0.223)***	0.084(0.021)
δ중고등교육기	-0.294(-0.022)	0.531(0.037)	1.503(0.180)**	-0.382(-0.092)
δ대학교육기	-0.204(-0.014)	0.434(0.028)	0.835(0.091)	-0.384(-0.084)
δ자녀독립기	0.126(0.006)	-0.152(-0.007)	0.873(0.069)	0.038(0.006)
주택의 규모	-0.046(-0.131)**	-0.115(-0.307)***	-0.001(-0.003)	-0.016(-0.146)**
δ주택의 소유	-0.726(-0.065)	-0.744(-0.062)	-0.422(-0.060)	-1.023(-0.293)***
방당거주인수	0.918(0.103)*	1.244(0.132)**	-0.199(-0.036)	-0.218(-0.079)
δ단독주택	1.024(0.091)	0.183(0.015)	0.328(0.047)	0.060(0.017)
δ연립주택	-0.911(-0.056)	-0.302(-0.017)	-0.111(-0.011)	-0.152(-0.030)
δ기타의 주택	1.189(0.045)	0.580(0.021)	1.617(0.098)*	0.933(0.113)**
δ단독주택가	1.538(0.141)*	-0.078(-0.007)	0.416(0.061)	-0.183(-0.054)
δ상가	1.915(0.080)*	1.379(0.054)	0.638(0.043)	-0.270(-0.036)
δ유흥가,공장	3.406(0.116)***	-0.090(-0.003)	1.341(0.073)	0.170(0.019)
가족의 적응력	-0.208(-0.115)**	-0.189(-0.099)g*	-0.156(-0.139)**	0.008(0.015)
가족의 조정력	-0.269(-0.145)***	-0.332(-0.168)***	-0.065(-0.056)	-0.092(-0.159)***
가족의 응집력	-0.076(-0.045)	0.006(0.003)	-0.029(-0.028)	-0.027(-0.052)
사회적지원	-0.128(-0.082)**	-0.166(-0.100)**	-0.134(-0.138)***	-0.048(-0.098)**
생활의 만족도	-0.373(-0.124)***	-0.424(-0.133)***	-0.129(-0.069)	-0.075(-0.080)*
회귀상수	31.963	34.371	19.598	9.641
R ²	.373	.338	.173	.303

* p < .05, ** p < .01, *** p < .001

δ : Dummy 처리변수.

〈표 4〉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표(계속)

(N=822)

요 인 독립변수	주택의 물리적환경 B(β)	주택의 생리적시설 B(β)	서비스시설의 이용 B(β)	프라이버시의 확보 B(β)
δ 지역	0.250(0.043)	-0.203(-0.028)	-0.364(-0.065)	0.260(0.058)
δ 자영상공인	-0.190(-0.031)	-0.921(-0.123)*	-0.522(-0.088)	-0.071(-0.015)
δ 사무직·기술직	-0.154(-0.029)	-1.113(-0.173)**	-0.424(-0.083)	0.022(0.005)
δ 전문직 등	-0.162(-0.029)	-1.221(-0.181)**	-0.424(-0.080)	-0.131(-0.031)
가구의 소득	0.002(0.057)	-0.005(-0.126)**	-0.001(-0.042)	-0.000(-0.007)
남편의 교육년한	-0.046(-0.051)	0.043(0.040)	0.029(0.034)	0.024(0.035)
가구원수	0.202(0.104)	-0.178(-0.075)	0.016(0.009)	0.012(0.008)
δ 가족형태	-0.272(-0.038)	-0.422(-0.049)	0.060(0.009)	-0.084(-0.015)
δ 미취학아동기	-0.280(-0.045)	-0.074(-0.010)	-0.293(-0.049)	0.403(0.086)
δ 초등교육기	-0.602(-0.098)	0.457(0.062)	-0.156(-0.027)	0.343(0.074)
δ 중고등교육기	-0.660(-0.106)	-0.422(-0.056)	-0.869(-0.145)*	-0.049(-0.010)
δ 대학교육기	-1.258(-0.183)**	-0.260(-0.031)	-1.073(-0.163)**	-0.195(-0.037)
δ 자녀독립기	-0.992(-0.104)*	0.025(0.002)	-1.179(-0.130)**	-0.049(-0.007)
주택의 규모	-0.021(-0.130)*	-0.001(-0.005)	-0.001(-0.009)	-0.015(-0.124)*
δ 주택의 소유	0.062(0.012)	-0.561(-0.088)*	0.085(0.017)	-0.304(-0.076)
방당거주인수	-0.468(-0.113)*	0.236(0.047)	-0.214(-0.054)	-0.170(-0.054)
δ 단독주택	0.108(0.021)	0.603(0.095)	-0.108(-0.021)	-0.010(-0.003)
δ 연립주택	0.492(0.064)	0.125(0.013)	0.031(0.004)	0.098(0.017)
δ 기타의 주택	1.476(0.120)**	1.179(0.079)*	0.192(0.016)	-0.387(-0.041)
δ 단독주택가	-0.220(-0.043)	0.702(0.113)	-0.092(-0.019)	0.084(0.022)
δ 상가	1.784(0.159)***	1.295(0.095)*	-0.600(-0.056)	0.469(0.055)
δ 유흥가,공장	0.829(0.061)	1.605(0.097)**	0.762(0.058)	0.530(0.051)
가족의 적응력	-0.074(-0.088)*	-0.062(-0.061)	-0.080(-0.099)*	-0.063(-0.097)*
가족의 조정력	-0.092(-0.107)**	-0.123(-0.117)***	-0.139(-0.167)***	-0.075(-0.114)**
가족의 응집력	0.007(0.008)	-0.084(-0.088)*	0.009(0.012)	0.031(0.052)
사회적지원	0.048(0.066)	-0.034(-0.039)	-0.035(-0.050)	-0.010(-0.018)
생활의 만족도	-0.061(-0.043)	-0.027(-0.016)	-0.074(-0.056)	-0.023(-0.022)
회귀상수	12.063	16.419	13.893	
R ²	.124	.287	.135	.105

* p < .05, ** p < .01, *** p < .001

 δ : Dummy 처리변수.

이웃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적응력, 사회적지원, 가정생활주기, 거주하는 지역, 주택 유형 등으로 17.3%의 설명력을 나타낸다(p<.001). 이웃이 자녀교육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인지하는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데 이는 자녀의 교육적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생활주기에서 자녀의 취학 시기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가족형 성기나 자녀교육기에 자녀교육 주변환경을 중시하여 이사를 하게 된다는 유영주 외(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주택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주택의 소유, 조정력, 주택의 규모, 사회적 지원, 생활의 만족, 주택의 유형 등이 유의하여, 30.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p < .001$). 주택의 경제적 요인의 스트레스는 주택의 소유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자가보다는 임차가구의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기집 마련에 대한 강한 욕구가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조정력이나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의 변동이나 주택의 소유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소음이나 공기오염과 같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요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의 규모, 방당거주인수, 조정력, 적응력, 가정생활주기, 주택의 유형, 주거위치 등이 유의하였으며, 1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p < .001$).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방당거주인수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의 진전에 따라 주택 선택과정에서 자녀의 교육적 환경보다 물리적 환경을 더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위치에서 상가에 거주하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상가에 딸린 주거공간의 계획시 소음이나 공기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주택의 생리적 시설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의 소득, 조정력, 응집력, 주택의 소유, 남편의 직업, 주택의 유형, 주거위치 등의 변수가 유의하며, 28.7%의 설명력을 보였다($p < .001$). 생리적 시설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남편 직업의 영향이 커 소득수준과 직업적지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구의 주택은 생리적시설이 만족수준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의 주택 유형과 유흥가, 공장지역, 상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임대주택 주거시설·설비 수준은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시설 이용의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정력, 적응력, 가정생활주기의 변수가 유의하였으며, 1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p < .001$). 공공서비스시설 이용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는 가정생활주기가 진전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심리적 자원이 풍부한 가족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낮았다.

이웃주택과 프라이버시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의 규모, 조정력, 적응력 등의 변수가 유의하고, 10.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p < .001$). 이웃주택과 시각·청각적 프라이버시 확보는 주택의 규모가 영향을 미쳐 규모가 클수록, 조정력이나 적응력이 높은 가족은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임차가구는 생리적시설과 설비 수준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수준이 높아 주거욕구의 단계중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생리적인 시설과 설비를 일정 수준이상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주택 유형이 가족의 안락과 편의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의 난방설비, 취사설비, 전기시설의 수준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생활주기의 진전은 가족의 주거 요구를 변화시켜 미취학아동이나 자녀교육기는 자녀의 교육에 적합한 이웃환경과 서비스 시설의 이용이 편리한 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자녀교육기 이후는 소음이나 공해와 같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단위의 주거단지의 계획시, 거주대상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주거의 위치와 단지의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심리적 자원은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수준의 주거환경하에서도 심리적 자원이 풍부한 가족이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이 경험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100점 기준으로 보면 42.4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로는 주택내 녹지나 정원의 부족, 이웃집의 소음, 주택근처의 차량소음, 물품보관과 정리 공간의 부족, 주택의 투자가

〈부록〉 주거환경 스트레스 인지의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주택의 난방상태	.745	-	-	-	-	-	-	-
주택의 전기·조명설비	.735	-	-	-	-	-	-	-
주택의 세탁·세면시설	.712	-	-	-	-	-	-	-
부엌의 취사설비	.630	-	-	-	-	-	-	-
취나 해충의 성가심	.574	-	-	-	-	-	-	-
주택의 구조설비	.527	-	-	-	-	-	-	-
화재나 주택내 사고 위험성	.496	-	-	-	-	-	-	-
주택의 크기	-	.746	-	-	-	-	-	-
거실의 크기나 조용함	-	.693	-	-	-	-	-	-
주택내 사생활 공간 확보	-	.660	-	-	-	-	-	-
가족단란의 장소	-	.636	-	-	-	-	-	-
가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	-	.632	-	-	-	-	-	-
물품의 보관·정리 공간	-	.617	-	-	-	-	-	-
주택내 녹지나 정원의 소유	-	.504	-	-	-	-	-	-
주택내부 공간의 적합성	-	.502	-	-	-	-	-	-
자녀의 학교	-	-	.688	-	-	-	-	-
자녀교육에 알맞는 이웃환경	-	-	.658	-	-	-	-	-
이웃의 생활수준	-	-	.621	-	-	-	-	-
이웃주택의 외부상태	-	-	.589	-	-	-	-	-
주택의 외부상태	-	-	.448	-	-	-	-	-
주택의 가격	-	-	-	.625	-	-	-	-
주택의 소유권	-	-	-	.450	-	-	-	-
주택근처의 조용함	-	-	-	-	.795	-	-	-
주택근처의 공기오염	-	-	-	-	.770	-	-	-
주택주변의 교통사고위험성	-	-	-	-	.579	-	-	-
주택의 유지관리비	-	-	-	-	-	.635	-	-
상·하수도 시설	-	-	-	-	-	.626	-	-
화장실의 사용	-	-	-	-	-	.594	-	-
주택주변의 방범상태	-	-	-	-	-	.429	-	-
공공교통수단의 이용	-	-	-	-	-	-	.764	-
공공시설과의 거리	-	-	-	-	-	-	.636	-
직장까지의 출퇴근시 어려움	-	-	-	-	-	-	.587	-
학교에의 통학시 어려움	-	-	-	-	-	-	.480	-
이웃집에서 들여다 보임	-	-	-	-	-	-	-	.777
이웃집의 소음	-	-	-	-	-	-	-	.706
고유치 (EIGENVALUES)	4.623	4.197	2.617	2.238	2.127	2.014	2.000	1.786
설명된 변량 (%)	30.4	5.8	5.2	4.5	3.5	3.4	2.8	2.8
누적된 변량 (%)	30.4	36.2	41.4	45.9	49.4	52.8	55.6	58.4

치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는 요소는 상·하수도시설, 화장실시설, 주택의 소유, 전기·조명설비, 통학시 어려움 등이었다.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내 시설·설비의 수준이 낮아 가족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었으며, 다음은 가족단란의 공간부족, 이웃의 사회적환경이 자녀의 교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요인별 분석 결과 생리적시설과 설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의 소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 임대주택의 주거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르며, 자녀교육기는 이웃환경이 자녀교육에 적합한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녀의 교육이 끝난 시기에는 소음이나 공해와 같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가족의 주거요구와 주거환경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주거환경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가족의 주거요구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보다는 각각의 가족에 당면한 주거요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가정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임차가구의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 화장실시설과 같은 가장 낮은 생리적인 주거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가구의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의 생리적인 시설과 설비를 일정 수준이상 보장해 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됨을 시사하고 있다. 자가소유의 가족은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앞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합리적이며 편리한 난방설비 및 취사설비와 주택 주변의 편의시설이 계획된다면 가족의 욕구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생활주기의 변화는 가족의 주거에 대한 요구를 변화시키므로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도 다르다. 미취학아동기나 자녀교육기의 가족은 자녀교육에 적합한 이웃환경과 공공서비스시설이 편리하기를 바라며, 이후의 가족은 소음이나 공해와 같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므로 대단위의 주거단지 계획시 주택의 규모 및 공간구성, 주거위치의 결정과정에서 가정생활주기에 대한 배려가 요망된다.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거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주거환경의 질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에 관계된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가족개개인은 주거요구와 환경의 영향이 다르므로 가족의 개별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아파트가 안락과 편의의 주거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거주하는 가족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Edwards 외, 1982), 공동주택의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유형이 가족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대기, "과밀환경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문집, 제 20집, 1981, pp.179-209.
- 2) 락인숙,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제 2호, 1986, pp.161-182.
- 3) 김미희, "주택유형이 주거환경의 질 인지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23권, 제 2호, 1985, pp.55-66.
- 4) 김정희,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7.
- 5) 문숙재, 이경희, "도시가구의 주거과밀지각과 주거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권, 제 1호, 1986, pp.109-125.
- 6) 박금희,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6.
- 7) 배종열,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

- 안”, 경북대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6.
- 8) 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2호, 1991, pp. 135-54.
 - 9) 유영주, 홍형욱,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과 주거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 12집, 1983, pp.43-74 .
 - 10) 이만우, “주거생활과 생활보전”, 주택금융, 제 20권, 제 5호, 1987, pp.16-26.
 - 11) 홍형욱,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1986.
 - 12) Baum, A., J.E. Singer & C.S. Baum, *Stress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tress*, Edit by G.W. Ev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2, pp.15-41.
 - 13) Bell, P.A., J.D. Fisher, & R.J. Loomis, *Environmental Psychology*, W.B.Saunders Company, 1978.
 - 14) Boss, Pauline, *Family Stress Management*, Sage Publications, Inc. California, 1988.
 - 15) Brown, J.M., “The Structure of Motives for Moving: A Multidimensional model of residential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15, 1983, pp.1531-44.
 - 16) Cohen, S., “Aftereffects of Stress on Human Performance and Social Behavior: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No.1, 1980, pp. 82-108.
 - 17) Cooper, C.C., *Easter Hill Village*, New York : Free Press, 1975.
 - 18) Coupe, R.T. & B.S. Morgan, “Towards a Fuller Understanding of Residential Mobility; A Case Study in Northampton,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 Vol.13, 1981, pp.201-15.
 - 19) Deacon, R.E. & F.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1.
 - 20) Downer, D.B., R.H. Smith, & M.T. Lynch, “Values and Housing—A New Dimens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0, No.3, 1968, pp.173-6.
 - 21) Edwards, J.N., A. Booth, & P.K. Edwards, “Housing Type, Stress, and Family Relations”, *Social Forces*, Vol.61, No.1, 1982, pp.241-57.
 - 22) Ferrell, M.Z., E.A. Kelly, & A.L. Bertrand, “Consumer Preferences and Selected Socioeconomic Variables Related to Adequacy of Hous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5, No.4, 1977, pp.232-43.
 - 23) Fiedler, F.E, and J. Fiedler, “Port Noise Complaints; Verbal and Behavioral Reactions to Airport-Related Noi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0, No.4, 1975, pp.498-506.
 - 24) Fisher, J.D., P.A. Bell, & A. Baum, *Environmental Psych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83.
 - 25) Holahan, C.J.,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Inc., 1982.
 - 26) ———, C.J. & R.H. Moos,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1987, pp.946-55.
 - 27) House, J.S. & S. Wolf, “Effects of Urban Residence on Interpersonal Trust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6, No.9, 1978, pp.1029-43.
 - 28) Kendig, H.L., “Housing Careers, Life Cycle and Residential Mobility ;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Studies*, Vol.21, 1984, pp.271-83.
 - 29) Lam, J.A., “Type of Structure, Satisfaction and Propensity to Move”, *Housing and Society*, Vol. 12, No.1, 1985, pp.32-45.
 - 30) McCray, J.W. & S.S. Day, “Housing Values, Aspirations, and Satisfactions as Indicators of Housing Nee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5, No.4, 1977, pp.244-54.
 - 31) McCubbin, H.I., C.B. Joy, A.E. Cauble, J.K. Cameaw, J.M. Patterson, and R.H. Needle, “Family Stress and Coping: A Dacade Review”, *Family Research 1970-1979*, 1980, pp.125-42,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32) Meeks, C.B., *Hous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80.

- 33) Melson, G.F., *Family and Environment*, Burgess Publishing Co., Minneapolis, Minnesota, 1980.
- 34) Michelson, W., *Environmental Choice, Human Behavior,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7.
- 35) Morris, E.W., and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 Sons, Inc., 1978.
- 36) Peck, C. & K.K. Stewart,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Quality of L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3, No.4, 1985, pp.363-372.
- 37) Rent, R.S. & C.S. Rent, "Low-Income Housing Factors Residential Area Evaluation in Hamilton, Canada", Environmental and Planning A, Vol.18, 1978, pp.41-52.
- 38) Rice, A.S. & S.M.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6.
- 39) Seek, N.H., "Adjusting Housing Consumption : Improve or Move ", Urban studies, Vol.20, 1983, pp.455-69.
- 40) Soen, D., "Occupant's Need and Dwelling Satisfaction", Ekistics, Vol.46, 1979, pp.129-34.
- 41) Speare, Jr. A.,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Vol.11, 1974, pp.173-89.
- 42) Varady, D.P., "Determinants of Residential Mobility Decisions — The Role of Government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 Factors",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49, No.2, 1983, pp. 184-99.
- 43) Zimring, C.M., "Stress and The Designed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7, No.1, 1981, pp. 145-71.